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집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새마을운동중앙회
Korea Saemaul Undong Center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집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CONTENTS

Interview

04 경기 파주시 외화산 마을공동체
다시 피는 꽃마을, 외화산 마을공동체

외화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 박영미



10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요룡1리마을
전통을 잇는 창휴예락(創休禮樂)마을

요룡1리마을 공동체대표 양근승

공주시 새마을회 의당면협의회
마을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의 역할

의당면협의회 회장 김도환

16 대구 서구 상중이동 아름마을
직장·공장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서!대구산업단지

아름마을 공동체 대표 장성우



Special Report

20 전북 전주시 노송동 선미촌마을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



1. 마음을 잇다, 도시의 마을공동체 26

부산 남구 생명가꿈 마을공동체
부산 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공동체
광주 동구 동구생명살림 - 가전
광주 동구 동구생명살림 - EM
대전 동구 자양마을
경기 성남시 해피마을

2. 마음을 열다, 공동주택의 마을공동체 40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동 금진빌라마을
경남 양산시 양주동 벽산블루밍아파트공동체

3. 마음을 보다, 농어촌의 마을공동체 46

세종 장군면 하봉2리 개미실마을
강원 횡성군 공근면 도화꽃 피는 마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대농마을공동체 '미라클'
전북 익산시 금마면 황각마을
전북 정읍시 입암면 영안마을
전남 여수시 진남마을
전남 완도군 생명의 3온 양지마을
제주 삼양1동 마을공동체

Epilogue 62



다시 피는 꽃마을 외화산 마을공동체

외화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
박영미



박영미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결혼을 계기로 외화산마을과 인연을 맺고 지난 약 30년 간 외화산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 광탄면 부녀회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 마을공동체에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외화산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외화산마을이라는 이름은 산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치 꽃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마을의 입구를 제외한 모든 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작은 농촌 마을로, 45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 주민의 약 80%가 고령의 어르신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나 다툼도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이다.

‘다시 피는 꽃마을 외화산 마을공동체’라는 공동체 사업명은 마을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은 명칭이다. 봄이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외화산마을의 꽃처럼, 마을공동체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관심과 참여라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외화산마을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골 마을이라서 고즈넉하게 살기 좋은 마을이지만,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고 공동체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문화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여 마을 내 문화 생활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마을 입구에는 삭막한 콘크리트의 대전차 방호벽이 50년이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뿐더러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 마을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

소통 부족, 환경 문제, 문화적 낙후 등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진짜 이유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였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그 시작은 소통

5명의 참여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더 살기 좋은 외화산마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함께 모여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마을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소통의 부족으로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탄소중립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함께하여 파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 친화적인 마을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마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공동체 의식의 부재, 마을의 지저분한 분위기, 휴식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 부족, 50년간 방치된 대전차 방호벽, 탄소중립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버리거나 변화시켜야 할 것이 적지 않았다. 막상 어떤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마을의 흉물, 마을의 명물이 되다

외화산마을 동네 어귀에는 원래 우리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모를 대전차 방호벽이 방치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군사적으로 그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철거되거나 주민들의 쉼터 등으로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마을의 방호벽은 마을을 드나들 때 통과해야 하는 정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을의 첫인상,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물인 셈이다. 우리의 첫 시도는 이 방호벽을 바꿔보는 것이었다. 방호벽은 마을 입구에 있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뿐더러 우리의 노력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광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방호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침내 방호벽을 꽃 그림의 벽화로 꾸미기로 최종 결정했다. 꽃 그림은 외화산마을의 이름과도 잘

어울리고, ‘다시 피는 꽃마을’이라는 공동체 사업명과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대대적인 물청소를 통해 방호벽에 쌓인 케케묵은 세월의 때를 개운하게 벗겨냈다. 벽화 그리기는 군부대의 동의, 지역예술가 벽화 봉사팀의 재능기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완성되어 모습을 드러낸 벽화는 기대 이상이었다. 마을의 분위기를 확 바꾸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꽃 그림 벽화는 이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외화산마을을 상징하는 명물이 되었다. 외화산 주변의 꽃은 계절이 바뀌면서 피고 지지만, 방호벽에 핀 꽃은 언제나 마을 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방호벽 벽화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변화가 없던 마을에서 방호벽 벽화 그리기는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대형’ 사건이었다. 특별히 홍보나 안내가 없어도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손쉽게 동참하여 더 좋은 마을 만들기의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서 우리, 방관에서 참여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실제로 처음 5명으로 시작한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이후 17명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지역 내 많은 단체들의 참여로 20명까지 확대되었다. 그렇게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바라던 이상적인 마을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방호벽 물청소로 시작된 환경 정화 활동은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제거, 잡초 제거, 쓰레기 더미 정리로 이어져 더 깨끗한 마을로 변모하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한번 깨끗해진 마을에는 더 이상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하던 방호벽 옆의 언덕에는 ‘진짜 꽃’이 피는 꽃동산을 만들었다. 꽃동산 조성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마을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마을에는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간이 목조 사우나 시설이 하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의 쉼터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자원 활용이라는 취지도 좋고 문화 시설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실행에 옮겼다.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책도 어느 정도 채워져 마을의 무인 도서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마을의 쓰레기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는 쓰레기 재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을에 있는 못쓰는 나무 펠릿(파렛트)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기로 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고난도의 작업이지만 목공예 소질이 있는 마을 주민의 재능기부로 훌륭한 분리수거함이 탄생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 차량이 주 2회 마을로 방문하기로 한 것은 덤이다.

이 밖에도 농기계보관창고의 정이품송과 대나무 벽화, 외화산 마을공동체 간판 제작은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완성되었다. 특히 나무 가지가 부러지기 전의 정이품송을 그린 그림은 무려 7시간 만에 완성된 것으로, 전·현 노인회장님들의 숨겨왔던 재능에 놀라고, 마을을 위하는 마음에 한번 더 놀랐다.

마을에 대한 관심이 움트다

마을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라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사례는 지역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인근 마을에도 영향을 미쳐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나이가 무색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마치 회춘한 것 같다며 만족하신다. 이제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난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에 20년간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어르신 쉼터로 바꾸기로 했고, 최근 도입된 어르신들을 위한 천원 택시에 이어 마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구상 중이다. 함께 잘사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외화산 마을공동체



01. 방호벽 앞에서의 외화산 마을공동체 기념 촬영
02. 원래의 대전차 방호벽 모습
03. 꽃동산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
04. 완성된 꽃동산과 직접 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05. 책이 있는 정류장 쉼터로 변신한 폐 사우나실
06. 벽화로 치장한 농기계 보관 창고



전통을 잇는 창휴예락(創休禮樂)마을

요룡1리 마을공동체 대표
양근승

양근승 마을공동체 대표는 요룡1리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직장 생활로 고향을 떠났다가 2012년 고향인 요룡1리로 귀농하여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왔다. 최근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요룡1리를 모범적인 마을공동체 사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룡1리는 어떤 마을인가

요룡1리는 충남 공주 의당면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 방향으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금강 지류 정안천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마을 주변에는 제법 규모가 큰 요룡저수지도 있어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골 마을이다. 마을에는 37가구 71명의 주민이 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귀농 및 귀촌 주민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3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샘고사는 마을의 자랑거리이다.

‘전통을 잇는 창휴예락(創休禮樂)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명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 공간인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예절을 지키며, 즐거움을 추구하며 마을의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우리 마을에는 3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마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샘고사가 있다. 샘고사는 일제 강점기나 한국전쟁 시기에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올려졌으며, 새마을 운동과 미신타파를 강조하던 1970년대에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과거 전국에서 많은 샘고사가 치뤄졌지만 지금은 샘의 역할이 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지면서 일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을의 샘고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샘고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샘고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여 행사 준비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물이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마을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어려운 점도 난관이었다.

그러나 샘고사의 명맥을 잇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마을에서 샘고사는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대동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이 잘 되라는 취지는 물론이고, 마을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음식과 정을 나누는 것이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 자발적인 참여,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마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샘고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창휴예락(創休禮樂)의 개념을 더해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중물

우리 마을에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건전한 공동체 분위기를 저해하는 갈등 요소가 있었다. 샘고사의 존치를 놓고 개인의 입장 차이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으며,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신 문제,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융화 문제, 인근 저수지의 낚시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분리수거에 대한 낮은 이해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였다.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 이수와 프로그램 참여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교육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파되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출발은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미화 활동과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을 자원 찾기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주민 참여로 시작이 되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의미있는 수확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의 분위기도 밝고 소통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귀농·귀촌 주민들의 융화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소통 부족으로 인한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런 오해들은 자연스럽게 풀렸고,

마을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 기부, 마을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등 달라진 모습에 마을에는 전과 다른 흐뭇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칼칼 솟아나는 마을 사랑의 샘물

이제 마을의 공동체 문화 분위기도 어느 정도 무르익고 해서 요룡1리의 자람이자 마을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샘고사 문제로 눈을 돌렸다. 마을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우물의 옛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확장해서 보수를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 때 마을의 95세 어르신인 통 큰 결정을 내리셨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샘고사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어 놓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배경에는 최근 마을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과거 마을에서 진행했던 리틀 새마을이라는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한 봉사활동의 영향이 있었다. 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르신의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런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우물 만드는 공사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돌을 정리하고 땅을 고르는 등 작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어떤 주민들은 마을의 좁은 진입로를 넓히는데 본인의 땅을 양보하여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했고, 풀이 무성했던 마을회관 근처의 공터는 훌륭한 마을 주차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을의 흉물이었던 쓰러져가는 빈집은 깨끗하게 철거하여 정리했다. 막혀 있던 마을 사랑의 샘물이 칼칼 터진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마을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는 희생과 협동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헌신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향후 지도자로 성장할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진으로 보는 요룡1리 마을공동체



- 01. 과거 샘고사를 치르는 장면
- 02. 새단장을 끝낸 요룡큰샘
- 03. 우물 공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
- 04. 마을 환경 정화 활동
- 05. 새롭게 마련한 마을의 대형(?) 주차장
- 06. 마을 자원 찾기에 참여한 마을의 학생들
- 07. 마을로 다시 돌아온 리틀 새마을 마을학교 졸업생들



마을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의 역할

공주시지회 의당면협의회에서는 과거 주로 면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면 단위로 진행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당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즉 면 단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대신 마을이 주관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의당면협의회에서는 면 단위의 빨래방을 운영해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2019년에 빨래방을 마을 단위로 전환하면서 면단위 기금으로는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을 부녀회장 소유의 세탁기를 사용하여 빨래가 어려운 가정의 이불 빨래 등 세탁물을 마을에서 처리함으로써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

2020년부터 추석 명절에는 ‘추석맞이 情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마을 단위로 전환했다. 과거에는 많아야 2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환 후에는 수혜 가구의 수도 늘어나고 명절의 마을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고 하며 만족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환경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점차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를 지키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 나눔’도 면 단위로 진행하던 것을 마을 단위로 전환하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유계리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마을 단위로 김장 나눔을 진행했는데, 마치 마을에 잔치가 열린 것처럼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숨은 자원 모으기’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분리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숲마을 공동체 운동을 계기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재활용 수거장 설치도 마쳤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마을 단위의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마을 문제는 마을에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기적인 마을 회의, 이장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면 단위 활동이 지도자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유계리, 요룡1리, 수촌2리, 월곡리, 중흥2리 5개 마을의 성공 사례는 주민들에게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도자에게는 의욕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종전 5개 마을에서 10개 이상의 마을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가 희망입니다!

직장 · 공장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서!대구산업단지

아름마을공동체 대표
장성우



장성우 마을공동체 대표는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35년째 몸을 담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관리공단의 국장을 맡아 서대구산업단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공단의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중이동 아름답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상중이동(上中梨洞)은 대구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정동인 상리동(上里洞), 중리동(中里洞), 이현동(梨峴洞)등을 포함하는 행정동의 명칭이다. 우리 마을은 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마을로, 전국 최초의 공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대구산업단지가 마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에는 입주사 2,435개, 근로자 14,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정동 중리동 동쪽으로는 공동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 직장·공장과 주거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다른 어느 마을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름마을’이라는 마을의 새로운 명칭은 직장·공장과 마을, 근로자와 주민이 잘 어울리고 소통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아름마을은 직장·공장이 마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마을이다. 또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운영되던 서구 새마을 직장·공장 조직은 휴면 상태였고, 공단과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도 단절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공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수도 있고, 환경 문제 등으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직장·공장이 먼저 나서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한다면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에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BACK TO BASICS

2021년 3월 직장 회원사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결과 BACK TO BASICS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처음 새마을운동의 정신

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새마을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살기 운동’이고, 이웃끼리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 것이 잘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남이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자조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직장·공장에서 쉽게 참여하여 시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로 새마을대청소를 찾아냈다. 그래서 매월 둘째 금요일을 새마을대청소의 날로 정했다.

새마을대청소는 여름 휴가철 한 달을 제외하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꾸준함으로 인해 공단 입주사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서대구관리공단 등의 참여로 회원도 1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다. 정기적인 새마을대청소에도 평균 70~8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새마을대청소 외에도 화분 설치, 직장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천 캠페인, EM 용액을 활용한 악취 해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점에서 선으로, 다시 면으로

우리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을 ‘점-선-면’이라는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즉, 나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소규모 주민 모임을 결성하는 ‘점’에서 시작하여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선’ 단계를 지나 마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를 구성하는 ‘면’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아름마을은 정기 새마을대청소를 통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을이 깨끗해졌다. 공단 입주사, 상중이동 협의회/부녀회, 서대구관리공단의 참여로 직장·공장과 마을 주민 간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룬 성과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가 마을공동체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공단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공동체를 아름마을에서 만들어 가겠다.

사진으로 보는 아름마을공동체



01. 평화엔지니어링 주변 대청소

02. 마을 화단 정비

03. 비오는 날의 대청소(삼익프린텍 주변)

04. 비오는 날의 대청소(삼광포장 주변)

05. 상중이동 부녀회의 마을공동체 교육

06. 상중이동 부녀회의 EM용액 만들기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

전주시 노송동 선미촌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과거 약 60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전주시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 공동체는 바로 이곳 선미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함께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꾸미고
골목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며
마을을 환하게 밝혔다.

노송동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은

전주시 노송동은 전주 중앙에 위치한 중심지로, 시청, 금융기관, 호텔 등이 위치해 있는 도심 지역과 오래된 집들이 밀집된 주거 지역이 혼합되어 있다. 전국민을 감동하게 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물이 아주 풍족하고 좋은 마을이라는 물왕벌은 견훤이 궁궐을 지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이라는 사업명은 마을을 상징하는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을 결합하여 만든 명칭으로, 선미촌의 아픈 과거를 물왕벌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치유하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미촌의 어두운 과거

선미촌의 어두운 과거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유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30년대 전주부 소세이초에 있던 유곽이 해방 이후 미 주둔군을 위한 위안소로 잠시 변모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60년 즈음에 전주 기차역(현 시청 위치) 건너 서노송동으로 일부 이동하면서 시작된 것이 그 시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잠시 규모가 줄었지만 이후 증가·감소를 반복하며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시작된 ‘서노송예술촌 문화재생사업’으로 선미촌은 서서히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격적인 강제 집행보다는 순차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하나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제는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되어 많은 도시에서 선미촌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슬로건을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에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로 변경하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 선미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 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선미촌과 물왕벌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하고 고민을 했다.

꽃길만 걸으소서

우리는 특별한 날 상대방에게 꽃을 선물한다. 축하의 의미, 감사의 의미, 사랑의 의미, 위로의 의미와 같이 다른 선물이 없는 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꽃 선물은

사람을 즐겁게 하며, 감동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력이 있다.

선미촌 물왕말 천사마을 마을공동체는 마을에 꽃을 심기로 했다.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꽃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3월에 포장 공사부터 시작되었다. 4월에는 꽃길 만들기와 시설물 공사를 진행했다. 5월부터 6월까지 식재 작업을 진행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꽃길 탐방로를 조성하는 순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공동체 회원과 노송동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아스타 꽃 1,000본, 국화 200본을 식재하고 야자 매트 50m를 깔아 아름답고 걷기 좋은 마을 꽃길을 완성했다.

텃새 없는 모두의 텃밭

농작물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정성을 들여 재배를 하고, 수확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선미촌 물왕말 천사마을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원래 텃밭은 우리집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을 의미하지만 마을공동체로 집의 개념을 확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농산물을 경작하는 것이다. 2월 마을 텃밭 설계부터 시작하여 3월~8월까지 텃밭을 조성하여 9월에 농작물을 수확하여 기부 및 반찬 봉사료 결실도 함께 나눴다. 특히 천사마을 김치 담그기 사업에 배추를 기부하여 이웃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천사의 마을 물왕말로...

우리 마을에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며 익명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그 분이 우리들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조건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천사와 같은 마음 때문이다.

우리 마을공동체도 그 분의 뜻을 본받아 변함없는 꾸준함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마을공동체로 가꿔 나갈 예정이다. 이제 물왕말은 천사의 마을로 기억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선미촌 물왕벌 천사마을



- 01. 물왕벌 꽃길 만들기 기념 촬영
- 02. 물왕벌 꽃길
- 03. 물왕벌 꽃길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
- 04. 공동체 정원 만들기 기념 촬영
- 05. 천사김장 나눔체험 축제
- 06. 환경 정화 활동
- 07. 착한농부 선정 기념 촬영



1. 마음을 잇다, 도시의 마을공동체



부산 남구 생명가꿈 마을공동체
부산 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공동체
광주 동구 동구생명살림-가전
광주 동구 동구생명살림-EM
대전 동구 자양마을
경기 성남시 해피마을



생명가꿈 마을공동체

마을에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원주민은 이주를 한 상황이지만,
신구의 차이와 격차 없이 이웃과 상생하며
함께 잘사는 친환경적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청소특공대, 생신상 차리기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솔선수범,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실천

홀로어르신 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청소특공대를 운영했다. 매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아 방문하여 집안 대청소와 이부자리를 선물해 드렸다.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새마을에서 앞장서서 ‘용기내자 우암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릇을 말하는 용기와 힘든 시기로 위축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는다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이다.

도심 속 건강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탄소중립 행복한 걷기를 시행했다. 암동 도시숲을 비롯한 마을 일대를 산책하듯 나서서 환경 정비와 걷기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마을의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건강지수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활동이었다.

마을의 변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개인의 건강과 도시환경 정화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등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는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속에서 자칫 고립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끊임없는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덕천3동 철쭉마을 공동체

주민이 서로 돕고 화합하며
지역발전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
덕천3동을 꿈꿉니다.



마을의 문제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 계층이 많아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많다. 따라서 하루 하루의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보면 주변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다. 주민들의 화합과 공통의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정비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우리의 실천

마을 대표들이 상호 교류를 위해 정기적 모임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자발적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생활 주변환경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 직접 지원하는 봉사대 활동 일정을 단기간 상호 조율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저소득 가정 방문 등 지원, 경로당 및 취약 계층을 담당하고, 타 기관 및 단체는 물품 등을 지원했다.

- 마을 화단 관리 책임제 운영
- 월 1회 이상 환경정비의날 운영
- 계절성 사업 선정 및 추진: 화단 조성, 환경 정비,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마을의 변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많이 부족했지만 과거 개인주의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이웃, 우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구생명살림 - 가전 소형가전 나눔 프리마켓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눠 쓰고 바꿔 쓸 수 있는 공유 문화로 전환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대표 지역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작동은 되지만 창고에 처박혀 공간만 차지하는 소형가전. 버리자니 아깝고, 당근마켓이나 알뜰장터에서 돈을 받고 팔기에는 미안한 소형가전. 원플러스원이나 이벤트 선물로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아 포장 그대로 먼지만 쌓인 소형가전. 몇 번 쓰다가 사용이 번거로워 잘 사용하지 않는 소형가전들이 가정에서 적지 않게 방치되어 있다.

우리의 실천

‘생명살림 현장교육’ 4회, ‘기후위기 실천 체험교실’을 8회 실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시설에서 시설 및 운영 노하우와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을 수강했다. 이후 거점 지역 우선 선정 및 소형가전 프리마켓 행사를 기획했다. 소형가전을 모으는 바구니를 준비하여 100여점의 소형가전을 수집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에 공유마당을 조성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형가전 프리마켓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소형가전 프리마켓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마을의 변화

산책로에서 잠시 머물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구생명살림 - EM EM 활용액 생활화 운동

광주천이 맑게 흐르고
녹색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며
별레나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없는
깨끗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광주천의 악취가 남광주 재래시장을 지나면서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심한 상황이었다. 특히 동구는 광주천의 상수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버려지는 생활 오염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의 오염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실천

생명 다양성 추구하고 생활 및 식당의 오염수를 줄일 수 있는 EM 활용액 만드는 방법을 매월 교육했다. 시범동을 선정하여 EM 나눔 탱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EM 활용액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각종 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마을의 변화

EM 탱크를 설치한 생활화 운동 시범 지구의 동 주민들은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용율도 높아졌다. 주변 식당에서 쌀뜨물을 모아 주고 주민센터에서도 공급을 도와 매월 1회 공급하던 EM 활용액을 월 2회로 횟수를 늘릴 수 있었다. EM 나눔이 있는 행사 때는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와 EM을 받아가기도 했다. 경험자들 사이에서 하수구의 벌레와 냄새가 줄어들고 화초의 생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양마을 자양동으로 놀러 5(oh)길 잘했어!

자양동 3대 보물인 목백합 살리기 운동,
자양동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자양동 숨어 있는 맛집 베스트 30 선정,
자양동 동광산 숲속도서관 및 숲속공연장 조성을 통해
놀러오고 싶은 자양동을 만들고 싶어요.



마을의 문제

골목길 환경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골목길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은 이웃간 분쟁, 이웃간 소통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리빙랩사업을 신청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통해 기관, 지역, 자생단체, 마을활동가들이 하나되는 원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실천

자양동새마을문고 중심의 마을기획단 구성

자양동새마을문고는 마을리빙랩사업의 중심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마을 역사를 교육

만학도 학생들에게 성취의 동기 부여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통했다.

쓰레기 분쟁 없는 행복한 프로젝트

재활용 분리배출 봉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스스로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

자양동 캐릭터를 이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통 제작 설치

골목길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제작하여 설치했다.

마을의 변화

이제 마을 골목길이 변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 방식에서 상당한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주민 협의체의 능동적인 참여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해피마을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건설로
주민이 행복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웃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우리의 실천

경로당 청소 및 보수 작업

경로당 의자 교체 및 수리, 테라스 데크 페인트 작업과 청소, 불필요한 의자 및 교자상 폐기, 조명 교체 등을 실시했다.

나눔 텃밭 조성

텃밭을 조성하여 감자, 옥수수,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가구 집안정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무연고 사망기초수급가구의 청소 요청이 있어 고인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마을의 변화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보수공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나눔으로써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마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기초수급자의 집을 청소해줌으로써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마음을 열다, 공동주택의 마을공동체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동 금진빌라마을
경남 양산시 양주동 벽산블루밍아파트공동체



목행용탄동 금진빌라마을 기찻길과 함께 여유가 있고 서로 봉사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부터 실천하며,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을을 향합니다.
마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며,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주민 통합을 이룹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마을을 꿈꿔요!



마을의 문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가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실천

사랑나눔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고구마, 마늘 등의 작물을 파종 후 수확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잉여분은 판매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백미를 전달하고 저소득층에 양파 및 생필품을 전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잘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밖에도 농촌 일손 봉사 40여 회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줍기, 제조작업 등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마을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기도 힘든 시기에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소외된 계층분들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마음만은 더 가깝게 다가서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벽산블루밍아파트공동체 사랑으로 소통하여 공경의 장 만들어요~

이웃과 만나면 웃으며 반갑게 안부를 묻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마을,
함께 꽃을 심어 가꾸어 풍요로운 정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을 꿈꿔요!



마을의 문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잘 안 하는 등 이웃들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정서적 결핍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우리의 실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승강기 내부에 쪽지를 붙여 소통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3대(노인, 청장년, 어린이)가 함께 마을 꽃밭 조성하기, 효 편지쓰기와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기,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께 삼계탕 끓여 나눔봉사하기 등으로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

단지 내 단감 나무에서 단감을 수확하여 주민 나눔하기, EM 쌀뜨물 발효액 및 EM 천연비누 만들어 나눔하기 등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었다.

마을의 변화

만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화기애애한 마을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쪽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소형 가전, 의류 등 재사용품 등을 서로 나누는 등 아나바다 운동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이웃사촌이 되었다. 부녀회원들이 만든 EM 쌀뜨물 발효액을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악취제거, 여름철 해충박멸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정되었던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감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마을 내 작은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강좌가 제공되어 이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노인정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된 ‘가훈 써주기’ 행사를 통해 구세대 & 신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3. 마음을 보다, 농어촌의 마을공동체



세종 장군면 하봉2리 개미실마을
강원 횡성군 공근면 도화꽃 피는 마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대농마을공동체 '미라클'
전북 익산시 금마면 황각마을
전북 정읍시 입암면 영안마을
전남 여수시 진남마을
전남 완도군 생명의 3온 양지마을
제주 삼양1동 마을공동체



하봉2리 개미실마을 주민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마실길 만들기

마을 입구 도로변을 꽃길로 만들어서
걷고 싶은 도로, 걷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깨끗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어요.



마을의 문제

개미실마을은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또한 마을 현안을 마을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주민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의 실천

개미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실길 만들기, 하봉저수지, 조형장군 사당, 음식, 축제 등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했다. 그리고 마을 입구 경관을 개선하고자 포장 도로변 방치된 유희지에 꽃길 조성(수국 200주, 백일홍 200주 식재)과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하봉저수지 불법 쓰레기 퇴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 입구에 마을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대상 역량교육을 진행했다.

마을의 변화

개미실 마을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마을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생명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공동체사업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민 스스로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마실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화꽃피는 마을 아름다운 금계천 가꾸기

공근면 중심천인 금계천의 맑은 물을 보전하고
청정한 자연을 지켜나가는 마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상부상조와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는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마을의 문제

공근면의 주요 농업 용수인 금계천이 가뭄으로 점점 말라가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오염되고 있어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쌍도화 나무가 노화되어 정화 기능이 떨어지고 경관을 해치는 곳도 많아 새로 식재하거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으로 영농 폐기물 관리 등 농촌 환경 개선과 함께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자제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의 실천

금계천변을 따라 쌍도화 묘목을 새로 식재하고 도로변과 공원에 심어져 있는 쌍도화 나무는 잘 관리하면 붉은 쌍도화꽃이 만발하는 4월의 금계천을 기대할 수 있다. 쌍도화길 현판을 설치하고 홍보에 활용하여 금계천과 쌍도화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M 미생물을 활용한 흙공을 만들어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정화 활동 교육의 기회로 삼고, 금계천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숙성된 미생물 흙공을 투척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회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전개,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명운동 실천에 매진했다.

마을의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명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트병 정기 수거, EM 미생물 하천 살리기, 금계천변 환경 정비 사업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쌍도화 이외에도 아름다운 국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금계천에 국화를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움이 있는 금계천을 가꿔나갈 계획이다.



대동마을공동체 미라클 행동하면 미래가 보인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생태친화적 마을,
주민들, 이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하나되는 마을!
저수지의 지류를 보존하여 하천의 스스로 정화를 돕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마을 단위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마을이 되고 싶어요.



마을의 문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잔류 농약 방치와 농약병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실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생명운동 교육을 실시했다. EM 활용 친환경 제품 만들기와 EM 흙공 만들기, 발효, 저수지 투척을 진행했다.

주기적 마을길 및 하천 정화 활동과 자원 재활용 사업(농약병 수거, 헌옷 나눔)을 추진했다.

마을의 변화

주민들이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생활화 되었다.

저수지 수질과 악취 문제가 개선되었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로 변모했다. 농약병 소각을 하는 농가가 사라지고 농약병 수거율이 높아졌다. 2021년에 농약병 3톤, 헌옷 1톤 수거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농마을의 생태지도가 완성되었다.



황각마을 우리강살리기 황각마을 공동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소중한 마을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강과 물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황각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약병과 쓰레기로 인한 토양의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물의 오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들길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실천

강살리기 DAY

황각천 살리기 운동, 농작물 친환경 농법 사용 및 자원재활용,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 미래세대 물교육

에너지절약

함께 절약해서 만드는 행복한 미래, 3.3 에너지 절약운동(가정, 사무실, 자동차에서), 불편함 받아들이기 운동

빈그릇챌린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살린다

마을의 변화

강살리기 운동과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 사업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마을공동체로 인한 변화이다.



입암면 영안마을 따뜻한 나눔 밥상 건강한 영안 마을

항일애국지사 진치만 선생의 애국 애향정신을 이어받은
영안 마을공동체는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꾸며가고 싶어요.



마을의 문제

천원천의 상류지역인 영안마을에는 입암저수지가 있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일부 몰지각한 사업체가 방류하는 폐유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실천

마을환경감시단을 만들어 저수지 주변 환경 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매일 마을 정자 주변 청소 및 마을 꽃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보여주기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국경일마다 항일애국지사 전치만공적비 앞에서 태극기 게양 운동을 실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애국·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천연 알로에 효소 및 알로에를 이용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밥상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고, 천연 알로에 손소독제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공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독거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 나눔행사를 진행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쿠킹클래스 교육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헌옷을 수거해 마을발전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을의 변화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항목이다. 그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던 마을 주민들이 변화되는 마을 환경을 보고 한분 한분 동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운동'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마을 우리강산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남마을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내일은 맑음’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마을의 문제

마을과 인접한 곳에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 있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촌 마을의 특성인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 등 노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건강, 안전,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실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해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재활용품 수집 활동,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휴경지에 케나프를 식재했다.

마을 내 버스정류장 청결 활동, 새마을 대청소, 바다 청결 활동을 진행했으며, 마을 내 상암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치어방류, 마을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복지관 중식봉사 활동, 지역축제(진달래축제 산신제) 참여, 거동 불편 노인세대 전기 리모컨스위치 교체, 취약계층에 생필품 나눔을 실천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 사회에 함께 소통하기 위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진행했다.

마을의 변화

주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고, 추진하면서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어 활력이 넘치게 변화되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민들의 참여율도 향상되었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로 개별 단체 활동을 하던 여러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활동하면서 발전하고 관계도 향상되어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생명의 3온 양지마을 온 동네가 온 마음 온 몸으로

바다가 아름다운 건강의 섬 양지마을,
고품질의 해조류 생산을 위한 청정바다 양지마을!
화석연료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후손을 위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양지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마을의 문제

농·수산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농지와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소각 및 화석연료 과다 사용이 심각하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과다 사용, 스티로폼 부자(Styrofoam Buoy) 과다사용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우리의 실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내집 앞 이웃 ‘우리 마을’이 운동의 현장이 되는 현장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지향했다. 부녀회와 이장님을 통한 쓰레기장 관리감독 및 현수막 설치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소각,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공기오염의 문제는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분리수거가 일상화 되도록 했다. 음식 준비를 뷔페식으로 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의 사용을 자제했다. 분리수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였다.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여 일회용 비닐의 사용을 줄이고자 했다.

마을의 변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의 분리 수거장이 점차 깨끗해지고 있다. 관내 행사 시 간소한 상차림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해 음식물 잔반 및 일회용품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장바구니를 집집마다 나눠줌으로 인해 일회용 비닐 사용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해양쓰레기 및 해양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삼양1동 마을공동체 삼(≡)양으로 함께하고 지켜가기

마을의 자랑인 용천수에서 흘러나오는 샛도리물을 잘 가꾸고,
천혜의 자원인 삼양 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치유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자원 활성화를 이룹니다.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마을의 문제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입주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마을 주민과 입주민, 관광객 등과의 마찰 등 소통의 부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셋도리물(빨래터) 이용객 또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수, 오수, 주차 문제 등 생활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실천

‘삼(≡)양으로 함께하고 지켜가기’는 생명지역 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一양. 문화유적 지키기, 二양. 마을공동체 형성, 三양. 생활문화정착으로 추진되었다.

一양으로 ① 선사유적지 주변 계절별 꽃심기, ② 풀베기, ③ 셋도리물(빨래터) 청소, ④ 원당봉 가꾸기, ⑤ 해수욕장 정화 활동, ⑥ 봉그명걸으멍 ⑦ 새산새숲 평화의 숲살리기를 추진했다. 二양으로 ① 직거래장터 나무 및 꽃심기, ② 일회용 봉투 사용 자제 홍보 및 장바구니 나눔, ③ 마을회 수익 환원 사업(1, 2차), ④ 마을 대청소 활동, ⑤ 마을 방법 활동을 추진했다. 三양으로는 ① 폐현수막 재활용, ② 캔, 고철, 페트병 수거, ③ 취약계층 환경 개선(어려운 이웃 도배 봉사), ④ 이미용 봉사, ⑤ 김치 및 고추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마을의 변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통해 기존 마을 주민들과 입주민들과의 공동체 활동 의식 확산과 직거래장터를 이용한 주민들간의 화합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어려운 이웃 김치 나눔 봉사, 마을회 수익 환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문화 확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상생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뽑내기 대회

2021년 12월 22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주관으로
「상생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뽑내기 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대회가 진행되었지만,
랜선이 녹아내릴 만큼 그 열기는 어느 대회보다 뜨거웠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제4강의실에서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뽑내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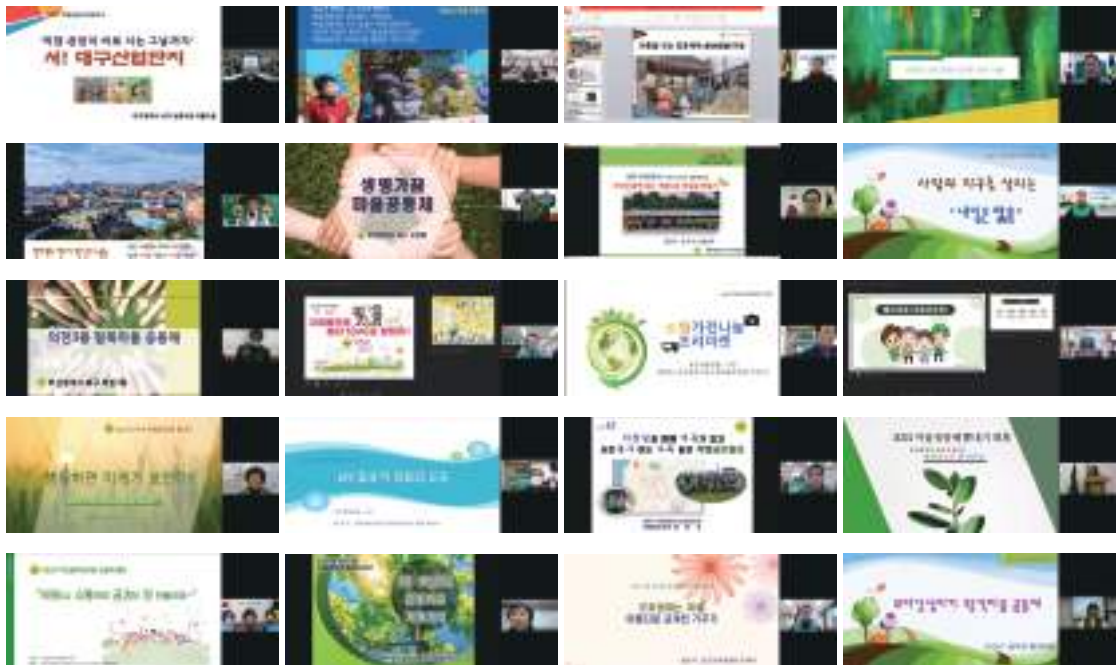


▲ 각 마을공동체 대표자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심사위원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본선 참가 20개 공동체의 발표 장면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집

2021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발 행 일 2021. 12

발 행 처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편집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사업국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전 화 031)620-2331~2336

팩 스 031)620-2339

홈페이지 <http://www.saemaul.or.kr>

인쇄·제작 브랜드셋 031-698-4965

새마을운동중앙회